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동판 제막식 행사가 마운틴 뷰 묘지(Mountain View Cemetery)에서 1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남가주밀알, 제 34회 사랑의 축제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 남가주밀알 제 34회 사랑의 축제 성황리에

남가주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 봉사자들 총 700여 명 참석해

12월 1일(토) 남가주밀알이 주최하는 “제34회 사랑의 축제”가 나성영락교회에서 남가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봉사자들 총 700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전 예배에는 나성영락교회 특수사역부 연합찬양팀, 발달장애인 통합오케스트라인 This Ability Orchestra의 특별 무대가 이어졌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는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성됨’을 강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체육관으로 이동해 교육부 학부모들이 손수 준비한 점심 만찬을 즐기

며 재즈피아노 연주(최원우), 크리스천 힙합 힙블 비즈, 갓스 이미지 댄스공연을 감상했다. 특별공연 이후 갓스 이미지 단원들은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무대로 초대해 함께 춤을 추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야외부스에서는 게임,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스낵크래프트, Sensory Play 등 다양하고 풍부한 놀거리를 제공했다. 사랑의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남가주 지역 장애인단체와 각 교회 장애사역부들이 연합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하는 놀이와 친목의 한마당이다.

## “구약을 최초로 번역해준 피터스 목사, 우리는 큰 사랑의 빛을 졌다”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자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동판 제막식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 기념 동판 제막식 행사가 풀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패서디나 지역의 공용묘지 마운틴 뷰 묘지에서 1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행사는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사업회(회장: 박준서 연세대 구약학 명예교수)와 풀러 Korean Center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기념 동판 제막식 헌당예배에서 설교를 한 김세운 교수(풀러신학교)는 “무슨 연유인지 46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피터스 목사가 한국에서는 잊혀진 존재였다. 이를 지금껏 기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도 “연세대학교 구약학 박준서 명예교수의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피터스 목사님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피터스 목사님이 한인족들에게 더욱 알려져서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의 후손인 스티브 피터스는 할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성경을 보이며, ‘깊게 감사드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막식에 후원한 서울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는 “피터스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하셨기에 한국 교회는 피터스 목사님에게 큰 사랑의 빛을 졌다”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의 사역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동판 제막식은 1부 예배 이후에 제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풀러신학교 관계자 및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공적을 기렸다.

구약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한국명 ‘피득’)는 1871년 러시아의 정통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의 정치적으로 암울한 상황과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피해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단했다. 러시아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으로 거듭

나 한국 땅을 밟게 됐다. 그는 미국 성서공회와 파송한 권서(勸書, Colporteur)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와서,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1895년 한국에 와서 3년간 한국말을 배운 후 1898년 시편 중 62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편환요’를 출간했다. 이것이 최초의 한

글 구약성경 번역이다. 1900년 피터스는 미국으로 가서 신학수업을 받은 후 목사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구약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으로 구약성경 번역에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1920년 마침내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을 완료했다.

토마스 멩가자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동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 2019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생 6기 모집

“건강한 선교를 위해 훈련과 정식 파송은 필수입니다.”

GMS(Global Mission Society)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100 개국에 2600여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GMS정규 특별과정 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5주간 정규특별과정을 마치시면 GMS 정식 선교사훈련 수료증과 파송과 임명을 받게 됩니다. 훈련 장소는 플러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에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선교 전문성을 갖춘 GMS 이사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GMS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6기 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 2월 22일(금) 5주간
- 장소**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 과정** : GMS특별과정
- 강사** : 김정훈 GMS이사장, 박무용 OMTc이사장외 다수
- 훈련비** : 1,500불(숙식 포함)
- 대상** :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 자격** : 1) 목사선교사후보생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합동교단 목사  
2) 장기파송은 부부선교사 파송을 원칙으로 함  
3) GMS 아메리카지역 소속된 각 지부 지부장 추천 받은자  
4) 전도사나 평신도는 타 교단 소속도 가능함
- 훈련** : 4주 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함
- 등록 마감** : 2019년 1월 28일(월)
- 문의** : 미주 OMTc간사 훈련원 간사 김수정 선교사
- 연락처** : T.(714)323-5011, (714)614-3666 E-mail: igmc21@gmail.com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2018 LA동부교협 주최 성탄찬양제 개최

9개 한인교회 참여, 찬양 마칠 때마다 큰 박수 쏟아져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성탄찬양제를 2일 오후 5시에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열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이승준 목사)가 성탄찬양제를 2일 오후 5시에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열었다. LA 동부지역 9개 한인교회 찬양대와 성도들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교협 성탄찬양제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교회 연합과 친목을 위해 매

년 연말에 연다. 이번 찬양제는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의 기도로 시작돼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누가복음 2:10-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승준 목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찬양제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찬양제가 시작돼 남가주주님의교회, 할렐루야

한인교회, 유니온교회, 선한목자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글로벌선교회, 아름다운교회, 나성한미교회, 선한침지기교회가 각각 두곡씩 찬양을 불렀다. 각 교회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찬양 후에는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기교회)가 헌금기도하고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가 광고한 후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축도함으로 행사를 마쳤다.

## 미주장신, 송실사이버대학과 학술교류 협약 체결



미주장신대학교와 송실사이버대학이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미주장신대학교(이하 미주장신대)는 지난 11월 30일(금) 미주장신대 회의실에서 송실사이버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가 현재 각각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화를 위해 특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 연구 양 기관의 전문가 교류 및 자문 양 기관의 발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등 교육과정, 공동연구,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진행키로 했다. 학교측은 “한국 내 주요 5대 사이버대학교 가운데 하나인 송실사이버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미주장신대는 북미주 지역의 신학교육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연구자원과 학술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이번 학술교류 협약을 통해 미주장신대학교가 현재 원격교육원(디렉터 강우중 교수)과 영어프로그램(디렉터 박 에스더 교수)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PTSA Global Education Program의 확장에 있어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주장신대학교 원격교육원은 2015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16여개국, 100여명의 재학생들이 신학사(B.Th.), 교역학석사(M.Div.), 크리스천심리상담석사(M.A.C.C.P.)학위 과정에 등록해 있다.

## 소망소사이어티 연말 갈라 행사 성황리에



소망소사이어티는 세리토스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연례 갈라 행사를 열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표어 아래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12월 2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연례 갈라

행사를 열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치매사업 확장을 위해 “치매,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갈라행사는 200명이 이상이 참석해 이 단체의 치매 관련 활

동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이창민 목사(LA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소망중창단의 노래로 이어졌고 소망 소사이어티의 치매 관련 활동을 담은 영상을 같이 보며 치매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분자 이사장은 치매 관련 활동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업의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영 김 전 연방하원의원 후보와 LA 총영사관의 구태훈 영사, 마크 오렘 알츠하이머 오렌지타운티 협회, 김종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격려사 이후 아르모니아의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이번 연례 후원 갈라 행사를 통해 9만불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밝혔다.

## 갯스이미지와 함께하는 파이어크루세이드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 포스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가 오는 12월 8일(토) 오후 5시에 부에나파크 소스몰(The Source)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갯스이미지, 김하나(CCM 사역자), This Ability가 출연하며 샘물교회, 굿네이버스,

브릿지원, 사인엔터테인먼트(Shine Entertainment)가 후원한다.

장소: The Source OC (1층 광장)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일시: 12월 8일 저녁 5시  
문의: 이강우 대표 213-505-4292, bsight@hotmail.com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 ‘건강 헬스케어비가 매달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께’

#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땡큐! 크리스천 헬스케어**

- 전 미주 45만명의 가입자들이 신뢰하는 35년 전통의 최대 의료조합
- 오바마케어 / 보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2017년 의료비 혜택 총액이 무려 2억5천7백만 달러
- 골드+브라더스키퍼 회원에게 무제한 의료비 지원
- 세계 어느나라의 병원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인당	가족당	개인부담	최고 지불액	브라더스키퍼	혜택범위
골드	\$150	\$450	\$500/건당	\$125천	무제한	의사방문, 검사, 약, 수술, 입원
실버	\$85	\$255	\$1천/건당	\$125천	\$10만 증액/매해	수술, 입원
브론즈	\$45	\$135	\$5천/건당	\$125천	\$10만 증액/매해	수술, 입원

### 크리스천 헬스케어 한국어 지원국

디렉터 티나 정 714-738-1234 • [WWW.CHMAN.ORG](http://WWW.CHMAN.ORG)  
251 East Imperial Blvd, Suite 410, Fullerton, CA 92385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70)

# 한국 교회와 3·1 독립운동 (I)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탄한 것이 1910년,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10년간의 한국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초대 총독으로 한국에 온 사내정(寺內正)은 한국에 와서 그 시정 운영을 군정으로 시작했다. 보병 2개 사단, 약 4만 명의 헌병과 경찰 그리고 약 2만 명의 헌병보조원이 전국에 배치되어 국민들을 감찰, 억압했다. 일반 관리는 물론 심지어 남작학교 교사들까지 군인과 같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그 같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교실에 들어오는 교사들의 칼 찬 모습에서 경찰이나 헌병을 연상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군국주의적, 권위주의적 행정을 폈다. 따라서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그 때부터 해방이 되어 물러갈 때까지 한 번도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된 일은 없었다. 한국을 병탄한 후 일제의 대한(對韓) 정책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거나 가르치는 일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역사와 언어 교육을 제한하였고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하는 어떤 문학작품도 철저히 색출하여 회수해 갔다. 반면에 일본사(日本史)와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한국인 스스로를 열등민족으로 비하(卑下)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또한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기 위해 일제의 정책에 순순히 맹종 시키려는 정책을 수립하여 하급 관리, 사무원, 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 1911년 8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의 기본 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일본제국에 충량(忠良)한 국민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2. 일본어를 보급한다. 3. 조선에는 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하면 실업 기능의 교육만 실시한다.** 이는 한국인을 철저히 일본인과 차별하여 2등 국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말로만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동화되는 국민을 만든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을 뿐이다.

**2. 경제적 수탈**  
둘째,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해 왔지만 자치권을 확보해 주었다. 특히 경제적인 침탈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는 달랐다. 특히 스와인(D.A.Swai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뒤 등록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국유화시켜 버렸고 ... 일본인들의 토지회사와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매각해 버렸다. 1909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인들 토지 소유는 10배에 달하였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한국인 소유의 4배에 달하였다. 더욱이 1910년에서 1920년까지

토지에 대한 세금이 2배나 증가하였다. 동일한 기간에 순수한 한국의 자본은 17%에서 12%로 줄었으나, 일본인들의 자본은 32%에서 80%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일제가] 한국의 산업을 얼마나 억압했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병탄한 후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조사령(1912년)을 내려 8년 동안 약 2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 토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 왕실 소유의 토지를 비롯하여 종교 사원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888만 정보, 동양척식은 11만 정보였고, 여기에서 받아들인 연간 소작료만도 50만 석에 달하였다.

또한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소유한 모든 농지를 등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이런 사실이 잘 홍보되지도 않았고, 등기하려 해도 그 수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 분위기가 많았던 농민들에게 등기 수속을 제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토지를 총독부가 강제로 압수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경제적 억압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토지와 삶의 터전을 잃고 외지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 결과 50만 명이 일본으로, 200만 명이 만주나 시베리아, 하와이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났다. 농토 외에도 광업, 임업자원과 어업에까지도 수탈을 자행하였다. 1905년 독도(獨島)를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시킨 것도 수산자원을 침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 퇴폐문화 유입 정책**  
셋째, 퇴폐문화의 유입 정책이었다. 일제는 일본의 청년들을 대거 한국에 이주시켜 한국 청년들을 부패시키기 위해 공창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금지하는 아편을 재배하게 하였다. 또 그것을 판매하여 우리 민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시키는 야만적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술과 담배를 전매하고 화투를 보급하여 청년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편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정책을 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아편이 확산되는 것을 직시하고 한 일병탄이 되기 바로 전해인 1909년에 사록사(A.M.Sharocks), 윗팅(H.C.Whiting), 어드만(Walter C.Erdman)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조직케 하여 아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 LA 천사의 모후 대성당서 헨델의 ‘메시아’ 공연



Messiah at the St. Monica

드림 오케스트라가 이번 12월 9일(주일) 저녁 7시 로스앤젤레스 대성당(The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헨델 메시아를 연주한다.

드림 오케스트라와 다니엘 석 지휘자는 “작년에 공연장소를 못 찾아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메시아 연주를 되살릴 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휘자, 테너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석 지휘자는 이탈리아 만토바 콘세르바토리와 UCLA를 졸업하고 2011년 드림 오케스트라 창단하고 영 아티스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이번 메시아 합창에는 두 개의 합창단으로 팀을 이룬다. 대성당 합창단은 로스앤젤레스 가톨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18명의 전문 연주자들과 50명의 봉사자로 이루어진 합창단이다. Opera Chorus of Los Angeles는 32명 전원 프로 오페라 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화려한 독주자들로 구성 되어있다. 소프라노 애나 슈베르트(Anna Schubert)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마스터 코랄(Master Chorale)에서

독창자로 데뷔하였으며 특히 헨델과 모차르트 전문 가수이다. 메조 소프라노 테일러 레이븐(Taylor Raven)은 2018년 제커리 콩쿠르 우승자로 현재 LA 오페라에서 주역과 조역으로 활동 중이다. 테너 토드 스트레인저(Todd Stranger)는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아워 오브 파워(Hour of Power)에 독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헨델의 곡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서곡과 메시아 1부(예수의 탄생) 할렐루야 합창 그리고 아멘 합창을 연주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에 실패해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한편의 오라토리오 가사를 전해 받은 헨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며 24일을 쉬지 않고 영감으로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기 원고 악보 마지막 장에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을)”라는 글을 적었다.

장소: 555 W Temple St, LA, CA 90012  
Ticket: \$10 ~ \$40  
phone: 213-432-1777 online: www.dreamorchestra.org

# 동부사랑의교회 12차 연말특별새벽부흥회

동부사랑의교회는 본교회 사랑채 플에서 12월 2일(주일)부터 9일(주일)까지 평일 새벽 5시와 토요일 새벽 6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제 12차 연말특별새벽부흥회를 열고 있다. 2일-5일(수)까지 박태

남 목사(벤엘교회)가 “절가방을 드신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6일-7일에는 이상훈 교수(폴리신학대), 8일-9일에는 박성민 교수(아주사과 시립대학)이 말씀을 전했다.

# 부에나팍에 마련된 마가 다락방

부에나팍에 위치한 마가 다락방은 목요일 저녁과 주일 11시에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최측은 이 집회에 대해, “기도원에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가기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함께 모

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주소: 7432 Orangethorpe Ave, #228 Buena Park, CA 90621 (Western + Orangethorpe)  
문의전화 : 818 -310-6919 한 집사

이벤트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1>

# 아프리카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의 긴박했던 이야기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아침 일찍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세현 선교사에게서 긴급기도요청이 카톡으로 전달되었다. 새벽에 급하게 보낸 것이 마음에 쓰여 곧바로 열어 보았다. 내용인 즉 김 선교사는 다른 도시로 선교세미나 인도 차출된 상태에서 사역지인 리라센타 주변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총성이 들리고 어딘가에서 불이 나고 시민 소요가 크게 난 것이다. 김 선교사도 미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 김미정 선교사가 홀로 리라센교센타 안에 숙소에 남아 있는데 지켜 주십사 하는 긴급기도 요청이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총을 쏘아 여러 명이 죽고 다쳤다. 필자는 이 글을 읽자마자 곧바로 무릎 꿇고 선교사님을 그리고 선교센터를 지켜 주십사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카톡을 열어 먼저 우리 교회 교우들 단체방으로 기도 요청을 띄웠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 안 "미주 목회자 선교협의회"의 단체 카톡방과 이어서 세계선교사네트워크의 400명 선교사님들이 조인해 계신 카톡방으로 긴급 기도 요청을 띄웠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카톡방에는 계속하여 긴급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교우들, 목사님들의 중보기도가 몇 시간에 걸쳐 계속 올라왔다. 필자는 그때 적잖은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추사감사절 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를 무렵 소요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고, 김미정 선교사는 안전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아! 이제 되었다. 긴장이 풀리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기도에 주었던 여러 네트워크 동역자들에게 전했다. 모두 한 걸 같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며 인사를 주고 받았다.

우간다 리라에서 난 소요사태는 그 지역에서 한 인도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어 중학생 아이를 죽

게 했다. 그런데 자기의 과실을 숨기고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서 그 아이가 부주의로 뛰어 들었다고 사고 리포트를 썼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인도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차에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외국인들을 향해 총을 쏘아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 선교지는 정말 어느 곳이건 안전할 곳은 없다. 이방인으로 사는 사역지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의지에서 겪는 어려움들, 위협한 상황들은 늘 도사리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의 30년 생활동안 선교사와 선교지와 연결을 맺고 지금까지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순교한 분들부터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질병, 교통사고로, 강도와 도둑의 피해, 건축 중에 지붕에서 떨어져 순교한 분 등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왔다. 후방에서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중차대한 사역중 하나는 선교사들과 사역지를 위해 날마다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가 그치면 안 된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선교현장에서 영적전쟁을 치르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화살과 같다. 영적화살을 그분들에게 날마다 공급해야 한다. 열방에 있는 학생선교사들과 선교지를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방의 새해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결심할 것들 중 하나는 이들을 위한 날마다의 중보기도를 올리겠다는 각오와 실천이리라.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1)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성경적 세계관에 도입하여 신학을 체계화하여, 중세 신학 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퀴나스는 1226년경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노지방 영주인 란돌포 백작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토마스는 세례명입니다. 아버지 란돌포 백작은 젊은 시절 상처를 후 유력한 가문의 귀족 테오도라와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둡니다. 어머니 테오도라는 나폴리 출신의 귀부인으로, 상당한 가문 출신이었으며 남편 란돌포가 사망한 후에는 세상을 뜨기까지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노가문의 지주 역할을 다한 용맹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모는 5살밖에 안된 어린 막내아들 토마스 아퀴나스를 성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토마스를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보낸 이유는 그를 미래의 수도원장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부모들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5세 정도 되었을 때 여러 이유로 수도원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수도사가 되는 수업을 중단하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떠나 나폴리대학에 입학합니다. 나폴리대학에서 토마스는 당시의 7개의 필수 학문인 문법, 논리학, 수사학, 대수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을 배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을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로 추정됩니다.

미래의 베네딕토 수도회를 대표하는 몬테카시노 수도원 원장으로 성장해줄 것이라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18살의 토마스는 도미니크회의 수도사로 입문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교자들의 수도회요, 탁발 생활(Mendicancy)을 원칙으로 삼는 도미니칸 수도사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당시 도미니칸 수도회는 결식을 통한 자신의 청빈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의 양대 원리를 견지하였습니다. 결식과 봉사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철저한 학문연구를 강조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칸 수도회의 후원과 추천으로 파리대학 교수를 지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여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을 완성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전 교회사를 통하여 수작으로 인정받는 결정작입니다. 중세 신학을 망라하는 방대하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신학대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복을 가르칩니다. 당대의 회자되던 8가지 행복 개념을 반박하면서 참 행복의 길을 소개합니다. 처절하리만치 절제하며 학문과 수도에 몰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임을 설교합니다.

그의 행복론은 이중적 행복(duplex beatitudo)입니다. 첫째 행복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연적 힘으로 누리는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 행복이 불완전한 이유는 신의 본질을 볼 수도 없고, 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불완전한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의 속성에 참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완전한 두 번째 행복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화요일에는 한인가정상담소를 기억해 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11월 27일 '기빙투스데이(Giving Tuesday)'와 연말을 맞아 후원 염서를 제작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연말, 특별 후원기금을 모으는데 올해는 '우리의 오늘이 아이들의 미래다'를 주제로 정했다.

평균 600-800명의 LA 카운티내 아시안계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내 매년 15명의 어린이 중 1명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18세 미만의 어린이 중 49.5%는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 이에 한인 커뮤니티가 마음을 모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을 함께 돌보자 라는 의미를 이번 주



제에 담았다. '기빙투스데이'는 추수감사절 이후 본격적인 할러데이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도 돕자는 뜻이 담겨있다.

후원 수표 Pay to : KFAM  
주소 :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후원 문의: 213-235-4869 (제시카 라 코디네이터)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신지식과 신앙 및 불신앙의 결과

마태복음 8:23-3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태복음 8:23-34

## 1.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들의 불안과 절망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고물에서 배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4:37에는 큰 광풍(狂風)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히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가 파선(破船)되거나 곧 침몰(沈沒)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제자들은 경험과 기술이며 진액을 다하는 노력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쳐 봤으나 자신들의 경험적 기술과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자각의식과 동시에 “이젠 죽는구나!”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혔고 비로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배개까지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큰 광풍에 배가 파선되거나 침몰할 것 같은 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적인 자부심도 대단했겠지만 그날은 아무리 노력해 봤으나 자신들의 기능이 전혀 기대걸 것이 없음을 확인하며 죽을까봐 호들갑 떠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후일 사도요한은 그의 복음서 1:1-3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즉 아주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며 극히 감탄하는 모습에서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근본과 존재와 사명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공연히 걱정하며 사력을 다해 헛고생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귀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이난의 상황을 고찰해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으로, 우주공간의 전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날은 제자들에게 알아보게 하시고 이후 전인류에게 알게 하시려고 정통보수신학의 관념으로는 예수께서 친히

광풍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 2.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의 성과

마태복음 8:1-4에는 예수께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마치시고 하산(下山)하실 때 밤새도록 길목을 지키며 기도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신지식의 깊이와 예수님의 능력의 가능성을 알고 믿는다는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절대존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을 드렸기에 문둥병을 고침받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5-13에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간다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신봉하며 그 말씀의 권능을 절대신뢰하는 신앙심을, 균율의 상명하복의 원리를 설명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어 간청하는 백부장의 신앙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하셨으니 가버나움의 백부장같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확실히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뢰하면 구원 얻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찌니라”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는 치유의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 3. 귀신이 잘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28-34)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는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5:4에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하면서 불안해하고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8:31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1-3에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써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

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과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귀신을 잡아 결박하고 천년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될 것까지 잘 아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중하여 멸망을 피하려 하지 않음은 고린도전서 12:3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듯이 사탄에게는 성령님의 계시나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9-20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줄 알고자 하느냐” 하심을 보아서 귀신이 범죄한 후 천국에서 사탄으로 추방되기 전에 수억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수종들며 호위했기에 옛 상전이셨던 예수님을 잘 알아 볼 수 있었고 이미 신적작정에 의하여 때가 되면 자기들이 무저갱에 천년간 인봉되었다가 최후 심판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향불 지옥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임을 꾸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척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귀신의 노리게가 되어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해서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때거리 귀신들의 간청이 “우리를 쫓아 내실진데 저기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고 귀신 떼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며 2,000여 마리가 갑자기 미쳐서 비탈길을 달려 바

다에 빠져 죽었으나 귀신 떼가 나간 두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돼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신명기14:8에서 “돼지는 굶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하셨습니다. 이같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병자로 귀신의 앞잡이가 되었던 두 사람이 구원받게 된 표적을 통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복음화 되기를 시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령사역은 오늘도 구원언어 성령받은 성도들에 의해 인류 복음화의 그날을 재촉하십니다.

호세아 6:3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13-14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체함과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보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로서 천계와 지계와 영계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 뜻을 좇아 살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다해도 자신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즉시 믿음의 기도로 문제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앞세울 때 즉시 해결과 승리와 성공을 보장 받게 된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는 성도라면 자기 인생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것이며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장애물, 광풍노도가 엄습해 온다해도 염려할 것 없이 예수님께 직고하면 즉시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은, 그 길은 주께서 가라하신 길이요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난풍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하는 태도가 신지식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원장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라디오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의 특별함은

###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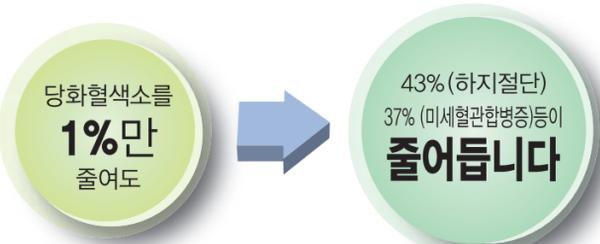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상태입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효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미국장로교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 KPC 총회

### PCUSA 서북미 한인교협, 동성애 반대 활동 적극적으로 펼칠 것!

미국장로교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이하 KPC)는 지난 27일, 시애틀연합장로교회(담임 장운기 목사)에서 총회를 갖고 2019년 임원으로 회장에 김병규 목사(주님의 영광교회), 부회장에 노광현 목사(퓨얼럽 한인연합장로교회), 김춘수 장로(시애틀 연합장로교회)를 선출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KPC는 미국 장로교 PCUSA 안에 있는 동성결혼과 동성애 목회자에 대한 찬성 세력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교회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KPC 목회자들은 “NCKPC는 그 동안 NCKPC내 교회들에게 복음주의 입장에선 펠로십 커뮤니티에 가입을 권장해, 동성결혼과 동성애 목회자 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마다 산하 40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해왔으나, PCUSA안에 동성애 지지자들

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동성애 지지 측 가운데 PCUSA 전체 총회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에 빠져있다”며 “지금까지 서북미 KPC 산하 14개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개 교회적인 활동에 머물렀으나, 이제부터는 PCUSA 안에 있는 NCKPC에 적극 가입을 권장해 PCUSA 산하 동성애 반대 단체와의 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 성경적인 동성애 옹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할 전문 강사를 세워 한인교회 목사와 장로, 교인들에게 동성애 반대 교육에 힘쓰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 동성애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의 개회 예배는 이영래 목사(시애틀 시온성교회 담임)사회로 장운기 목사가 설교했으며, 이경호 목사(타코마 제일장로교회)의 축도했다.

폴 원 기자

###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이제선 회장-남궁전 부회장 선출



교협 정운영 이사장이 이제선 신임회장에게서 교협기를 전달하고 있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신임회장에 이제선 목사(애틀랜타은혜교회 담임), 부회장에 남궁전 목사(베다니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29일(목) 애틀랜타은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교협은 20개 교회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제선 회장은 “부족한 종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성령에 의지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목사는 또 “아직 사업총회를 통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 전도를 위한 일에 힘쓰고 싶

다”며 자신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2019년 부회장은 정관에 따라 PCA에서 섬길 차례였으나 부회장 후보의 건강상 문제로 차기 순서인 감리교단에서 순서를 바꿔 섬기게 됐다.

총회에서는 또 한인교회 김세환 목사, 새생명교회 조용수 목사, 그레이스장로교회 김종현 목사, 세광침례교회 최기철 목사, 프라미스교회 최승혁 목사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됐다.

임원 선출에 앞서서는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수고한 서기 백성복 목사와 회계 이순희 장로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 웨드럴웨이중앙장로교회 임직예배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자”



웨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임직예배

웨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담임 장홍석 목사)는 지난 25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송정수, 이춘자, 장남형, 주영이, 황신희 등 4명의 권사를 세웠다.

박용훈 목사는 “은혜에 감격하라”(로마서 1:1-2절)를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는 귀한 직분은 지금까지 수고와 노고 또는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알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 원 기자

## 교회협의회

<p><b>LA 지역</b></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b>김성식 담임목사</b></p> <p><b>LA백송교회</b>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p> <p><b>씨니킴 담임목사</b></p> <p><b>LA씨티교회</b></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비블리칼교회(7과 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일링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막기 위해, 이단기정음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p> <p>사일링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일예배 오후 11:00</p> <p><b>최순환 담임목사</b></p> <p><b>New Church</b>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b>한현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션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예배 오후 12: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00 주중토부 오후 12:45</p> <p><b>강진웅 담임목사</b></p> <p><b>갈보리민음교회</b>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e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주동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b>김민수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b>지용덕 담임목사</b></p> <p><b>미주양곡교회</b>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전 1:00 목요일찬양(베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월) 오후 1:00 주일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유주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b>정병노 담임목사</b></p> <p><b>새일교회</b>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07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15</p> <p><b>정세훈 담임목사</b></p> <p><b>새한교회</b>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주부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b>정인호 담임목사</b></p> <p><b>예수마을교회</b>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주,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p> <p><b>곽건섭 담임목사</b></p> <p><b>에은장로교회</b></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b>박은종 담임목사</b></p> <p><b>예일한인교회</b>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5:20 (월-금)</p> <p><b>김중호 담임목사</b></p> <p><b>예향선교회</b>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오전 5:30 리셋에델만예배(소배) 오전 11:0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리타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리타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유주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오전 11:00</p> <p><b>김신 담임목사</b></p> <p><b>주향교회</b>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주동부 오전 11:00</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초점을 둔 교회, 그리스도의 초콜릿, 바른교회인의 초콜릿</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김은목 담임목사</b></p> <p><b>평화교회</b>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의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최근 5년 사이 '가나안 성도' 더 늘었다

## 826명 실태조사... 73% "신앙과 교회는 별개"



정재영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수가 최근 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소장 정재영 교수)와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 동안, 1년 2회 이하 출석자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826명을 대상으로 '가나안 성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30일 오후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한 관련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5년 전에도 같은 조사를 했다.

◆언제 교회 떠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1~2년이 25.8%, 3~5년이 25.6%, 6~10년이 28.3%, 11~15년이 6.8%, 16~20년이 9.1%, 21년 이상이 4.1%였다. 평균은 7.7년.

이들 발표한 정재영 교수는 "5년 전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2년 가까이 줄어들었고, 절반이 넘는 51.4%가 5년 이내에 떠난 것으로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왜 떠났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31.2%가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 이유(18.8%)", "자유로운 신앙생활"(13.9%) "시간이 없어서"(8.4%) "신앙적 회의"(7.8%) "목회자에 대한 불만"(6.3%) "교인들에 대한 불만"(5.8%) "지나친 헌금 강조"(5.2%) 순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거 교회에 다닐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그렇다 42.5%) "개인의 신앙 다양성을 인

정하지 않는다"(그렇다 66.9%) "목회자는 권위주의적이다"(그렇다 53.6%) "속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그렇다 65.4%) 등이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관계는?  
특히 응답자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72.7%는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교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또 91.4%는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교회를 떠난 후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8.1%가 "신앙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신앙이 약해졌다"는 38.4%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는 3.5%에 불과했다.

또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한 이들은 9.9%였고 나머지는 모두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교회 재출석 의향은?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5.9%(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다 3.7%+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다 52.2%)였다. 5년 전 조사 결과인 67.0%보다 15% 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5년 전 결과(13.8%)보다 2배 이상이 29.5%였다.

이처럼 5년 전보다 교회 재출석 의향이 약해진 것에 대해 정 교수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다시 나가고 싶은 교회의 유형으로는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곳"을 가장 많이(46.0%) 꼽았다. 이어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18.2%)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9.9%)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8.4%) "교인 간에 관심과 배려가 많은 교회"(8.2%)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6.7%) 순이었다.

김진영 기자

# '종교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5명은 왜 남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본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던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임용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보통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법무부는 6개월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 63명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이 63명의 수사부터 재판과정 형 집행 과정 등의 기록을 검토했으며, 이들 중 5명을 제외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봉사

# '종교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5명은 왜 남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본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를 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병역 거부 관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게 범죄가 아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 검토를 통해 대법원이 말하는 종교적 신념·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을 가석방 조치했다"며 "남은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려워 가석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기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지 여부라면, 이는 특정종교 편향이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대웅 기자



FFRF 제공

# 말구유에 예수님 대신 권리장전? 성탄 전시물 논란

## 미국 일리노이주 무신론 단체가 설치

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가 일리노이주 법원 앞에 예수님의 성탄을 빗댄 무신론 조형물을 전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은 최근 미국의 개혁자들인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이 아기바구니에 놓인 권리장전을 바라보는 전시물을 배치했다.

이 전시물은 시카고 인근 그룬디카운티 법원 앞 잔디밭에 설치됐으며, 12월 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전시물 앞에는 법원 방문객들이 행복한 동지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행복한 동지를 맞아 우리는 이성과 권리장전(1891.12.15)를 존중합니다. 주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까지 그룬디카운티 법원 앞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종교를 위해서도 공간을 내

주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FFRF와 같은 무신론 단체들의 압력도 이같은 정책 변화의 이유 중 하나였다.

일리노이주 스프리 루드만(Spry Rudman) 부검사는 "현재 일리노이주 보안관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2013년 우리는 위스콘신의 무신론 단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주 의사당 잔디밭에 오직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조형물만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면서 "그들은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주와 카운티 건물에 설치된 기독교 전시물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당 앞에 십계명 기념비를 세운 아칸소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탄템플은 십계명 기념비에 반대해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바포멧 동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실제로 바포멧 동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 자살하려던 남성을 구한 기독교인 여성 '화제'



현지 언론과 인터뷰 중인 니콜 오올라. ©폭스뉴스 공식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자살을 결심하고 다리 위에서 있던 남성이 처음 만난 한 여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살을 포기한 사연이 화제다. 그녀와 한 남성의 이런 이야기는 지난달 폭스뉴스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처음 소개되고 SNS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23살의 여성, 니콜 오올라(Nicole Oyola)다. 사건 당시 그녀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하워드 프랭클린(Howard-Franklin) 다리를 지나다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에 남성의 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불안을 느낀 그녀는 결국 차에서 내려 남성에게 다가갔다.

김신의 기자

# 결혼한 저스틴 비버 "사랑하는 법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결혼한 소감과 함께 감사의 글을 적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비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부남이 된 후 처음 맞는 추수감사절이었다. 추수감사절 호스트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양가 부모님을 한 자리에 모신 것도 처음"이라며 안부를 전했다. 그는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사랑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 방법을 보여주는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 방법을 보여주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블드윈은 지난 7

월 약혼한 후 9월 뉴욕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다. 이달 초 헤일리 블드윈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아내는 정말 멋있다"고 말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블드윈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헤일리리비버로 변경했다. 올해 부활절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부활절은 바니(토끼)에 대한 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난 이를 믿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난 가장 높이신 분의 자녀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장예배(월-토)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예배(월-토)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태(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회 오전 11:00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민경엽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삼라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행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왕상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장로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아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여부)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명의사랑회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혜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당신은 '영적인 거식증' 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 처치리더스닷컴, 관련 칼럼 게재

교회 사모이기도 한 케리 폴마(Keri Folmar) 작가는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에 '당신은 성경 거식증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그녀는 "우리의 몸처럼 영혼도 굶주린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모든'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 A.W. 토저의 말과 같이 '온전한 성경이 온전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줄리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거식증을 앓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혈압, 피로, 가는머리카락, 불규칙한 심장박동,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제일 무서운 점은 거식증에 걸린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거울을 볼 때, 마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똥똥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 영적 거식증에 걸릴 수 있다. 한 번은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매주 해야 할 숙제가 많았다. 한 친구는 내게 성경공부 때문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원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공부 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성경책을 편다. 그런 후에는 성경책을 덮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교회 봉사로 늘 바빴다. 음악팀의 일원이면서 아이들 사역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그러나 개인적인 영적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마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도 영적 거식증에 걸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케리 폴마 작가는 "하나님께

서는 당신의 말씀을 뺏, 찢, 풀이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또 자라나도록 너그럽게 당신의 양식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영적인 매뉴 중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지 알려준다"고 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 1:3)

이어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더욱 성장하라고 권면한다.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서로가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한다.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육체를 위해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도 영적으로 굶주릴 수 있다. 최신 음악, 예술적인 영상과 화려한 조명 등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슬프게도 성경은 오늘날 많은 교회 집회에서 제외돼 가고 있다. 심지어 말씀을 믿는 교회들도 집회에서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는다. 너무 지루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찬송가나 음악에서 성경적 진리는 멀리 가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진다. 설교도 그렇다. 결국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흥미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중국에서 첫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윤리적 논란



©Pixabay

중국에서 유전자 일부를 편집해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아기'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선전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 지안쿠이(He Jiankui) 교수는 지난 26일 유전자 편집기술로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 연구는 처음일 뿐 아니라 하나의 예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회가 과학과 더불어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자 쌍둥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회 국제인류유전자편집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여자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임치료를 받던 7쌍의 부부로부터 배아를 얻어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 부모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AP 통신은 그의 연구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 선전시 의료윤리

문기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남방과기대 측은 허 교수팀의 연구가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자 학계의 기준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유전자 증폭이나 성별 선택, 피부색 조작 등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아기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유전자 편집기술이 활용된 인간이 탄생한 것이라면 이것이 처음이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했다는 주장들로 인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내 과학자 122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연구를 비판했다. 국제 과학계에서도 비판과 함께 연구 중단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스크립트 리서치 트랜슬레이션 연구소(Scripps Research Translational Institute)의 에릭 토폴(Eric Topol) 박사는 "이러한 유전자 편집은 너무 이르다. 우리는 인류의 운영 지침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큰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조지 처치(George Church)박사는 "증가하고 있는 HIV는 이같은 시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라며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 마이클 화탈리, 빛의 사냥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전 11:7). 지혜자 솔로몬 왕의 말이다. 태양 광선을 통하여 만물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시며,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번째 것입니다. 이 빛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며, 초식동물의 먹이를 준비시키고, 육식동물에게 활력을 줍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마이클 화탈리(Michael Fatali)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하나님의 “나타남”(representation)이며, 하나님의 “유산”(inheritance)이자 선물이며, 온 피조물을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expression)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을 사랑하여 사진 찍기를 30년 이상 계속했습니다. 그는 사막, 광야, 계곡, 산정, 숲속 그리고 시냇가에서, 일주일, 수개월을 머물며, 노숙하며, 등반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유타와 아리조나의 사막을 다니면서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담아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진작업은 어둠에 숨겨졌다가 빛과 함께 나타나는 피조물 가운데 숨겨진 은총의 순간을 형상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자연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빛의 형상이 만드는 창조적 순간과 완벽한 절정의 찰나를 묘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빛의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그는 경치를 찍는 최고의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이와 같이 수많은 놀라운 구절을 말씀하신 저자(Author)이라면, 우리는 이를 경험하도록 축복을 받았고, 나 자신은 이 언어를 사진으로 전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2018년의 햇빛

이 이제 3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 새벽, 저는 교회 사무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기 위하여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과 열기와 에너지가 책장과 방안을 눈부시게 비추고 퍼지며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밝은 빛이 비오듯 난 뒤의 싱싱한 나무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아름다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영적인 빛이 되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9:5)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덮어주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인생과 자연만물을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2018년 한 해의 햇빛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요 이방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비침을 받으시는 “빛의 사냥꾼” 되길 축복합니다.

### 기다리면 자랍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되면 어떤 동물은 동면(冬眠, hibernation)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리듬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리듬 중의 하나가 사계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리듬과 흐름을 잘 탈 줄 압니다. 우리는 리듬을 따라 노래하고, 리듬을 따라 춤을 춥니다. 노래 속에 율포가 있습니다. 춤을 출 때도 잠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잠시 멈추고,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 힘, 그 기다림을 통해 아름다운 다이내믹을 만들어 냅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겨울같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래 참음”이란 말을 “long-suffer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인생의 소중한 리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리듬입니다.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조급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함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반면에 기다림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물건은 순식간에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서서히 자랍니다. 아이는 서서히 자랍니다. 나무는 서서히 자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힘듭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희망을 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는 희망이라는 빛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마치 모든 씨앗이 어둠 땅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궁 안에 임태한 작은 씨앗을 서서히 키웁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은 오래 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임태한 후에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고전 13:4)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7)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 후에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눅 15:4, 8).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 집 떠나간 탕자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는 동안, 채찍이 아닌 용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새 옷과 새 신과 금가락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함께 축제하기 위해 살진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를 성숙케 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통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욱 많이 배웁니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내게 주소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랍니다. 기다림을 통해 무르익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원숙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복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성스러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무엇 때문에 분주해야 할까요?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지난 주간은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모시고 Faith Clinic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섬기시느라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방과 차량, 순서의 진행을 위해 많은 집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뛰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분주하게 뛰다보니 약간의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분주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의 목적이 바른 것일 때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사실상, 많은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일도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주하게 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뛸 때 그 열매가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해도 정말 가치있는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걸모양은 거창하고, 외모는 화려한데, 실속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런 일들을 지양하고 한가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고, 더 축복된 분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보다 더 소중한 것, 절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온 타운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바쁨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성탄은 선교입니다. 샬롬!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번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단(PCUSA)에 속해 있으며 담임목사님의 정년 퇴임으로 인하여 새롭게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자격**
  - 1) 정규 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분
  - 2) PCUSA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3)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유하신 분
- 2.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 : PCUSA의 PIF 양식(개인 정보 양식)을 선호합니다.
  - 2) 학부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증명서 각 1부
  - 3)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고백과 목회 비전 및 계획 Statement
  -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 싸인 연락처 및 전화번호 기재)
  - 5) 최근 6개월 내의 설교 2편 (동영상이나 CD)
- 3.제출안내**
  - 1) 서류는 2018년 11월 15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메일로 접수합니다.
  - 2)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청빙위원장(오케빈 장로): [klovej42@hotmail.com](mailto:klovej42@hotmail.com)  
T. 561-312-1274
    - 접수처  
이메일 : [klovej42@hotmail.com](mailto:klovej42@hotmail.com)  
우편 접수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PNC)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참조**  
교회 홈페이지: [www.pbkc.org](http://www.pbkc.org)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미스바

화양 여성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20 S. LAFAYETTE PARK PL#200  
LA CA 90057 (LA 비전교회)  
문정란 목사 | 213.344.6313

**반주자 모집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안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따로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이 소명일까?”

## 영락교회서 ‘2018 일터소명 컨퍼런스’ 열려

‘새벽기도의 여왕’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마음에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돼.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광고를 그만두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를 위해 돈을 안 쓰고 교회에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때 돈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적 책임을 위해 일을 하면서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잘 나가던 엔지니어로서 삶을 버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일주일에 네 번, 하루 4시간씩 빌딩 청소를 하다 불평을 터뜨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골 3:23)는 말씀으로 소명을 가르쳐주셨다.” — ‘일터서명미니스트리즈 대표 방선기 목사’

“광고인으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으니 죄책감이 엄청났다. 별명이 ‘새벽기도의 여왕’이고 돈만 생기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했던 나는 내가 하는 ‘세속적인 일’ 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 을 하기로 했다. 그때 나는 일터와 소명(faith and work)을 몰랐다. 지금은 일터든, 가정일든, 어디서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일터소명임을 알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 하고 싶다.” — ‘국내 여성 1호 카피라이터·지엔엠글로벌문화재단 문애란 대표’

하나님 안에서 진로와 소명을 발견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는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참석한 2018 일터소명 컨퍼런스에서 두 일터서명자는 자신의 일과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풀어갔다. 15~18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는 ‘청년, 멘토를 만나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 트랙별 모임, 간증, 찬양 및 공연, 기도회 등으로 진행됐다.

17일 오후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전한 방선기 목사는 “엔지니어로서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언젠가부터 일이 힘들고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도 월급이 좋아 열심히 일하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신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저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일, 좋은 직장을 버리

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재미 없는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간 것”이라며 “결혼했을 때 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렸지만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감히 결단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면 이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그동안 받던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월급봉투를 받아 약간 당황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만하게 하셨다. 그러나 일단 소명을 발견하고 결단할 때는 돈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선기 목사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식당 일, 페인트칠, 청소 등 각종 노동을 해야 했다. 그는 “제일 힘든 일은 청소였다.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 하루 4시간씩 5층 빌딩을 청소하는데 몸이 일단 힘들고,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이곳에 왔지 청소하러 왔습니까. 청소하라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도 주변의 도움은 없고, 대신 하나님은 제게 더 귀한 것을 주셨다”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청소 아르바이트도 제게 맡겨진 이상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공부만 주의 일이 아니라 청소도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다. 청소가 재미있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성경 공부, 기도, 예배만 주께하듯 하지 않고 청소도 주께 하듯 하게 된 것”이라며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청소할 때 배웠다. 500여 년 전 마틴 루터도 이미 성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목장에서 목동 일을 하거나 종류는 다르나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쳤고, 바로 직업소명론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든 주께 하듯 하면서 소명을 발견한다.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고 열정이 없어도 경제적 책임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해야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소명을 보여주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은 소명을 찾기 위해 돈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경제적 책임을 위해 일하다 보면 소명을 찾게 된다고 해서 조금 모순될 수 있다”며 “추상적으로 소명을 알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애란 대표는 이날 “일터든, 가정일든, 어디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터와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들며 “동굴 속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그림자 환영을 보고 진짜인 것으로 알지만, 동굴 밖으로 나오면 진짜 빛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일, 승진, 결혼, 연애, 관계, 돈 등에 묶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저같이 나이 든 리더의 잘못이다. 예레미야애가 5장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애지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제대로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았던 많은 죄가 내 자식들, 젊은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게 한 것”이라며 “리더가 잘못하면 반드시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저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으로 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췌! 레간자’ ‘미인은 잠꾸러기’ 등 카피라이터로 유명세를 탔던 문 대표는 “그때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새벽기도의 여왕’이었고 건축현금도 많이 내고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대상을 모르고 내 말만 열심히 한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제가 한 것은 33년간 해 온 세속적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일터와 소명을 알았다면 계속 광고일을 했을 것”이라며 “이후 컴패션 코리아에서 10년간 풀타임 발런티어로 온 힘을 다해 일했다. 제 백에는 항상 200장 넘는 결연서가 들어 있었고 한 달



방선기 일터서명미니스트리즈 대표가 일터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나면 다 결연시켰다. 제가 정말 행복했는지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생기면서 나의 마음에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애란 대표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아마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일 것”이라며 “하나님이 저를 살짝 건드려보시니 저는 쓰레기통이었다.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광고를 그만두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를 위해 돈을 안 쓰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다 써요’라면서 하나님께 계속 생색내고 교만이 엄청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십자가 길을 걷는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 그렇게 못 살고 내 소견에 옳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일을 엄청 잘하는 관창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함께 모여라,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라.” 이것이 지난 7년간 저를 바꾼 가장 귀한 방법이였다”며 “성경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정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읽기 어려운 성경을 읽도록 만든 것이 ‘드라마바이블’이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매주 금요일 점심 샌드위치를 먹으며 성경을 듣는 여의도 ‘금요일바이블런치’ 모임과 좋

은 책을 오디오로 만들어 함께 듣고 귀로 듣는 ‘저스트 쇼 클럽’ 등이 소개됐다. 문 대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직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면 함께 배우고,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며 “우리 집은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 일터소명 컨퍼런스는 15일 권기정 Bingo 대표, 정명진 소프컴패니언 대표, 이길재 세계선교공동체 한국 총무, 이창덕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팀장이 패넬로 나선 토크와 16일 2011년 팬 퍼시픽 자유형 400m 동메달을 딴 로부터다 수영선수 김세진 군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의 간증, 17일 키노트 스피치와 방송인 정선희, 조혜련 씨와 조명환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 회장 조명환 건국대 교수,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등의 토크콘서트, 7가지 트랙별 세션(창업&소셜벤처, IT&디지털마케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패션&라이프, NGO&교육, 예술&스포츠, 진로-일터-소명), 18일 연합예배 등이 열렸다. 색스포니스트 박광식, 워홀트랜스미션(양동근, 흥배, 에스더김, 어거스트콰이어), 가수 지미션 씨의 특별초대 공연도 진행됐다.

김윤성 영락교회 위임목사는 “이 모임에서 우리는 삶의 진로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배우고, 일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신앙 역량을 나누며, 다음세대 청년의 삶과 사회, 일터를 하나님의 뜻으로 개척해 가는 공동체적 역량을 세워

가지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정기총회 공고

**2019년 1월 7일(월)**  
**오전 11: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공천위원회**  
**백지영, 강지원, 김헬렌, 조은혜, 박수지, 박소피아**

**회장후보 및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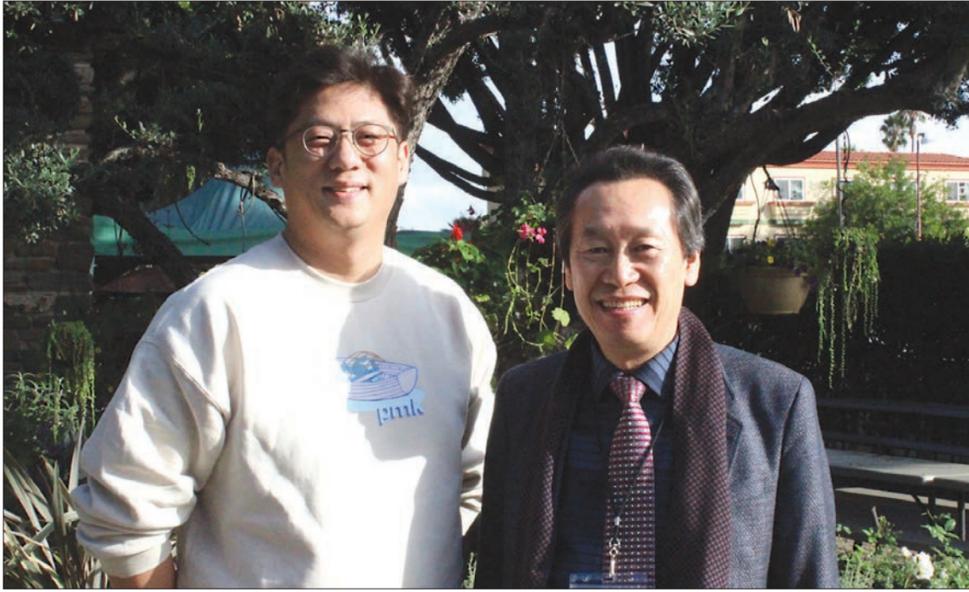
- **일 시** : 2018년 12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
- **등록처**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공천위원회
- **위원장** : 안선신 목사 T.(213)905-0646
- **등록서류**
  1. 이력서
  2. 안수 증명서
  3. 교단 소속 증명서
  4. 최종 학력 증명서
  5. 소속 상회 추천서
  6. 시무교회 후보 3주간
  7. 공천기금 회장후보자 \$1,000 (머니오더 및 캐쉬어) 수석부회장 후보 \$500(머니오더 및 캐쉬어)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및 공천위원장 안선신 목사  
 총무 조은혜 목사

# “목회자·선교사 자녀들도 내면에 있는 것을 터트려야 되요”

##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의 설동욱·윤대혁 목사 만나



윤대혁 목사(좌)와 설동욱 목사(우)

**자식에게 미안한 것이 있으면 고백해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신앙을 강요하면 안돼  
목회자 자녀라도 고난 힘들, 인생의 굴곡을 잘 극복해야  
자녀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줄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난다**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Pastor Kids),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를 보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이 좋겠다. 바르게 자라겠다. 겸손하다.’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에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목회자 자녀이니 경거망동하면 안 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다.

부모님들이 교회 사역자이다 보니, 목회자·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난다.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의 사람들로 커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장성하여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혹에 의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얼마전 11월 말에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가 열렸다. 그런데 이민교회 목회자가 아닌 한국교회 목회자가 나서서 이들을 돌보기로 자처했다.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 예정교회 담임)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는 사랑의빛선교교회의 물심양면의 후원으로 3박 4일 동안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 목회자 자녀들은 그동안 맺혀있었던 어려움을 나누는 한편, 모임은 비슷한 또래끼리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

로 마련됐다. 실제로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찬양을 하는데 자리 곳곳에서 자녀들이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자녀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주최한 설동욱 목사, 그리고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를 만나 그들이 자녀를 키워오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들어봤다.

**-한국에서는 33회째 컨퍼런스 인도, 미국에서는 2회째 여는데 첫번째와 다른 점이나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설동욱: 미국의 한인 이민목회자 자녀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보다 이민교회가 더 열악하고, 성도들의 토양이 한국 성도들의 토양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이기에, 목회자 자녀들도 힘든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이들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난해 컨퍼런스와 다르게 강해를 줄였습니다. 지난해는 2박 3일 동안 열렸는데, 올해 3박 4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형들,

언니들, 누나들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였던 목회자들이 강사로 섰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적어도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속을 안씩입니다. 한국에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 것도 남편 목회 하는 것에 도움되어야 하고, 자녀 세미나 하는 것도 아버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평화로워야 하죠.

목회자 자녀들이 세미나에 참석 한 이후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가기 때문에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목회자 이십니다’ 그러셨어요. 자녀가 세미나 다녀와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세미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증거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미나 참석 이후에, 스텝으로 섬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회 때는 중고등 학생까지 참석해서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참석한 학생들이 직접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더 준비도 좋고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목회자·선교사 자녀들이 자라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대혁: 자녀들이 부모님이 목회

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 이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이 P.K.(Pastor’s Kid)인데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성도 얼마나 늘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 데려다 줄 때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목회에 짐이 되면 안되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영적 DNA입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섬김을 배우고, 힘들음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해줘야 합니다. 이게 자녀 컨퍼런스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모 목회의 현상이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동욱: 이전에 서울에서 자녀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느 중학생 자녀가 헌금을 하면서 기도제목이 ‘교회 부흥,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기도제목을 보면서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기도제목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나이에 기도제목이 교회 부흥이어야 되겠냐요. 목회자 자녀 중에서 담배를 피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자유를 탄압해 보자, 그리고 평생 행복하자고 컨퍼런스에 참석을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컨퍼런스 참석 후에 아이들이 변합니다.

윤대혁: 어떤 학생은 아버지 교회가 작으니가 아버지가 코스트나 연합집회, 그리고 목회자자녀 컨퍼런스에 가보라고 해서 온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연합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가 울면 ‘뭐 힘든 일이 있든가 보다’ 하고 걱정해주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해 받을까봐 울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밖에 나가서 말조심하라고 항상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속에 있는 것을 터트리고 싶은데 터트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 컨퍼런스는 구별된 장소이죠. 자기 아픔과 고민을 드러내도 되고, 그러면서 치유 받게 됩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설동욱: 하나님이 키우신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천번제 기도를 두 번 하기도 했습니다.

윤대혁: 저는 PK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면 폐가 되니까 매사에 조심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강요 안해요. 아이가 농구 클럽에서 활동을 하는데 보통 파이널 시합이 주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파이널에 가는 것은 너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없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시합이 있어도 고등부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식을 믿고 있습니다. 수양회에서 아들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이 신앙을 존중하게 됩니다. 갔다 오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자신이에요.

설동욱: 자식과 대화가 통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자주 부흥회에 다니니 같이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했어요. 자주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아빠는 목회하다가 부흥회까지 하는 사명을 받아서 자주 집 밖으로 다녀야 한다고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이 격정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이 하나인데, 형제가 없어서 아이가 심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을 때는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라는 캠페인이 있었고, 다들 가난했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식과 무슨 현안이 있으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 가정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자식에게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해요. 나는 원래 미안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이가 아파하고 있으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안한 것이죠.

윤대혁: 아이에게 언제는 코스타(KOSTA)에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번 해? 그러면 은혜롭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다면 나중에 자식과 선교 다니고 싶어요.

☞ 15면에 이어서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임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14면으로 부터

-이민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봐 오셨을 텐데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설동욱: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제각각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버티고 견디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면 더 좋은 것이지요. 아이들이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더 참기를 잘했다'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잘 견디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쓰실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크게 쓰일 사람은 크게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당만 하면 축복이 있고 목회자 자녀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진짜 힘들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고, 시장에 가서 고생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지요.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감

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대혁: 인생의 굴곡은 은혜의 저장소라고 합니다. PK, MK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굴곡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나 선교지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사모세미나도 계속 개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동욱: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회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복음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는 정말 많은데, 사모님들과 하는 세미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힘을 주어야 되겠다해서 첫 행사를 전남 무안에서 열었습니다. 1회 때 600명이 모였어요.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모세미나를 개최해오면서 처음에는 '좋은 일 하네', 그 다음에는 '지금도 하네'라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순간 사모세미나가 나를 떠받고 있더라고요. 그 열매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사모님과 관련된 기

획을 하려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녀컨퍼런스를 해오면서 보람되거나 하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동욱: 학교를 그만 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번 술 마시고 행패 부리던 친구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해서 결국 중의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스태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양산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초청했냐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자식이 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랑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설 목사님 하는 자녀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은혜를 받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설동욱 목사님 검색을 해보고 나를 부흥회에 초청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오래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되니 듣든



'제2회 미주 목회자·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를 통해 설 목사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한 거예요. 세미나 갔다 와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목표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사모님들도 극한 상황까지 다다랐다가 사모세미나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대학가서 공부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간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설동욱: 컨퍼런스에 다녀 간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컨퍼런스에 참석할 필요가 있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눌수 있는 소통의 현상이 여기입니다. 내 자녀는 괜찮다고 생각할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세미나 보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멩 기자

# 조지 H. W 부시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미국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전 대통령

미국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최근 더 가스펠코어리전(The Gospel Coalition, TGC)은 '조지 H.W 부시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조지 H.W. 부시는 1924년 매사추세츠 밀턴에서 프레스코트 쉘던 부시와 도로시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친의 할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다. 이는 영국성공회 신부이자 유명한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조지 부시는 전쟁기간 군에서 복무했으며,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후 사업을 운영하다 정계에 입문함으로써 아

버지의 길을 따랐다.

2. 조지 H.W. 부시는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에 소속된 17세의 학생 당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18세 나이에 입대해 결국 해군 예비군과 해군 비행사 장교가 되었다.

3. 해군에 합류한 지 2년 후, 부시는 도쿄에서 700마일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서 급습을 당했다. 그의 비행기는 공습 직후 여러차례 총격을 받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한 공군대원들은 9명에 불과했다. 그는 섬에 추락했고, 미국 잠수함에 의해 구조됐다. 일본인은 다른 8명을 붙잡고

고문하고 처형했다. 그 중 4명은 도살을 당했다. 그는 "왜 제가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주신 건가요?" 궁금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운명이 있었고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4. 일본이 항복한 지 한 달 후인 1945년 9월 부시는 해군을 떠나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2년 반 만에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가족들과 텍사스로 이주, 석유사업 분야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0년대 두 개의 석유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이미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이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5. 그는 아내 바바라와 함께 조지 W.(1964년), 로빈(1949~1953), 켈(1953년), 닐(1955년), 마빈(1956년), 도로시(1959년) 등 6명의 자녀를 두었다. 1964년 텍사스 상원의원이었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이어갈 때라고 판단하고 선거에 나섰다. 당시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1966년 휴스턴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1970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2번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6. 두 번째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한 부시는 NASA 대표, 중소기업 회

장, 대통령 특별 보좌역 등 닉슨 행정부의 여러 직책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후 닉슨 대통령은 그를 유엔 대사로 임명했다. 그는 공화당 전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유엔 대사로 활동했다. 제럴드 포드(Gerald Ford)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시는 국무부 중 국연락사무소장을 맡았고, 이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됐다.

7. 부시는 1980년 공화당 예비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24% 표를 얻었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로널드 레이건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중도에 포기했다. 전당대회에서 부통령을 선출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은 제럴드 포드(Gerald Ford)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처음에는 부시가 정책적인 견해 차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시는 레이건과 공화당 플랫폼을 모두 지지한다고 동의한 후,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백악관에서 8년 동안 정치적 견해차가 사라질수록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8. 부시는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레이건의 뒤를 이었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미국장애인법(American Disabili-

ties Act of 1990)이 통과되는 등 중요한 국내적 변화가 있었다. 그의 중요한 성과 중 많은 부분이 외교 분야에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와 페르시아만에 군대를 보내 파나마 지도자이자 마약밀매업자인 마누엘 노리iega(Manuel Noriega)를 체포하고, 쿠웨이트를 불법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 군대를 추방했다. 그는 또 독일 통일 등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시 전 대통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9. 부시는 오랫동안 성공회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 그는 "당신은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까?'라고 묻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즉시 대답할 수 있었다. 만약 단 한 순간에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묻는 것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순간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평화의 시가 통일의 꽃길 되리라

| 소강석 지음 |

304면 / 13,000원

새벽 성루에서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하박국처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절규하였던 가난한 신학생** 광야의 영성과 현대적 지성, 예술적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신도시 대형교회 부흥을 이룬 후 개교회 성장을 넘어 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평화통일의 봄을 외쳤던 목회자 소강석목사, 그가 시로 써 내려간 화해와 용서, 평화의 여정이 펼쳐진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3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이데올로기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2017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명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찬상 병문환대상, 윤중주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단국대학교 명예문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보존문학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320면 / 13,000원	 예수 마리아가 되라 320면 / 13,000원
 새롭게 하소서 236면 / 13,000원	 미래교회 서바이벌 320면 / 12,000원

**▶ 출판사** \* 한국인터넷주소 : 공인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내)

# GAIA COR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저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천미**



##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게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4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구입문의 213.434.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